



김종열 | 사무국장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
 창녕제일고등학교 조경과 산학겸임교사

조경수의 재테크기술 (화살나무)

품명	화살나무
과명	노박덩굴과
학명	<i>Euonymus alatus</i>
개화기	5~6 월
열매결실	10 월

우리주변 산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엽관목 자생수종으로서 주택정원이나 공원에 식재하면 봄에는 꽃을,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을 그리고 빨간 열매는 새를 유인하는 장관을 이루며, 겨울에는 이색적인 가지와 설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넓은 장소에서는 군락으로 식재하여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며 또한 줄지어 심어 첨경목으로도 좋습니다. 줄기에 붙은 특이한 날개 모양으로 잎이 없는 겨울 가지는 꽃꽂이 소재로도 널리 활용 되고 있는 수종입니다.

1. 나무 이야기

화살나무는 줄기가 화살의 날개 모양으로 붙여진 이름으로서 속명 유니머스(Euonymus)는 희랍어로 좋다는 뜻의 유(eu)와 이름이란 뜻의 오노마(onoma)의 합성어로 평이 좋다는 의미이며 희랍신화 중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기도한 나무입니다.

종명 알라투스(alatus)는 날개가 있다는 뜻으로 모두 코르크 날개와 관련이 있는 이름으로 가지에 난 날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참빗살 같다하여 경남 지방에서는 참빗살나무라고도 합니다.

일본이름은 니시끼기(錦木)인데, 이는 붉은 단풍이 비단같이 아름답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되어있는 나무로써 가을의 붉은 단풍은 그 어떤 단풍나무 보다 아름답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미국화살나무, 산동화살나무, 코카스서화살나무등 과 같은 품종이 많이 들어와 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살나무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암나무로 불리우며 자생지에서 마구 남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봄에 새순을 채취하여 차를 만들어 마시면 맛과 향이 아주 일품입니다.

2. 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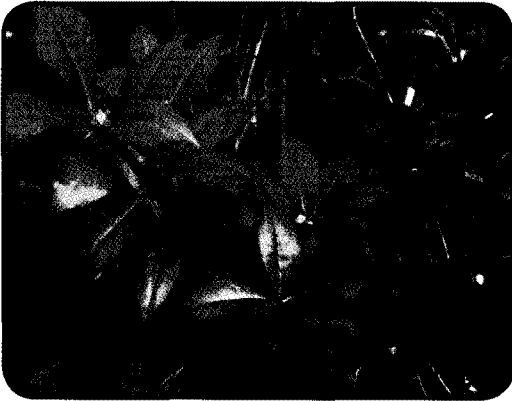
화살나무의 번식은 종자번식과 영양번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종자번식으로는 10월 말경 열매를 채취하여 물에 2~3일간 담가 두었다가 과피를 물로 씻어 내고 노천매장하여 이듬해 봄에 파종하면 다음 해 봄에 발아 하

는데, 발아율이 저조한 편이어서 약 50% 발아율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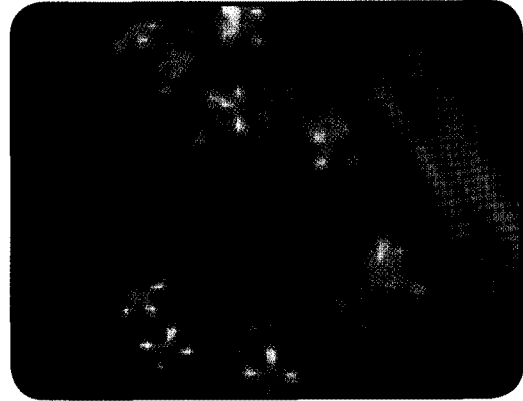
그해 10월에 직파하여도 발아율은 같으며, 특히 채취한 종자가 건조해지면 발아율이 떨어지고 발아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영양번식은 3월하순~4월초순경 전년에 자란가지를 15cm 길이로 잘라서 깨끗한 모래와 마사를 혼합해서 준비한 삼목상에 꽂으면 활착이 잘됩니다.

여름삼목(7월중순) 과 가을삼목(9월중, 하순) 도 봄삼목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면 가능합니다.



봄에 신초 발아 모습



5월 개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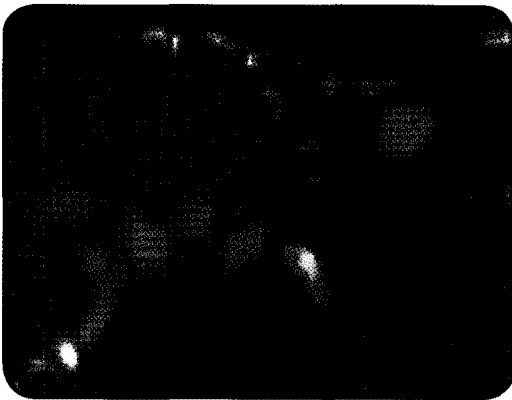
3. 생육특성

화살나무는 마사토질의 다소 건조한 곳을 좋아 하며, 이식 시기는 낙엽이 떨어지고 난 후부터 다음해 3월 까지 무난하며 잔뿌리가 많아서 활착은 잘되는 수종입니다. 반음수 수종으로서 더운 지방에서는 반그늘에 심는 것이 단풍이 곱게 들고 오래 지속 됩니다. 시비를 많이 하면 도장지가 많이 생기며 단풍이 곱지 못합니다.

수형은 자연수형보다 재배자의 취향에 맞게 다소 낮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강전정을 하면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여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수형은 3~5년에 한번 정도로 모양을 내어주며 평소에는 12월~2월 경에 나무 내부 잔가지 뿌리에서 나오는 움푹은 가지만 잘라주며 작은 키로 키우고 싶을 때는 원하는 키 높이에서 전정해 줍니다.

4. 병해충

특별한 병해충은 없이 잘 자는 편이나 여름철 잎을 가해하는 버드나무자나방과 물결자나방이 잎을 갉아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방제 살충제는 트리클로르폰(디프)수화제 1,000배액 또는 클로르피리모스(터스반)수화제 1000배액으로 살포하여 방제하며 깍지벌레가 발생하면 메치온유제(수프라사이드)로 방제하면 됩니다.



가을철 열매 모습



가을철 아름다운 단풍 모습